

국내 검색시장 판 흔드는 AI... 네이버 아성에 '도전장'

네이버, 지난달 검색 점유율 64% 2분기 중 AI 적용 범위 확대 예정 구글, '제미나이 인 크롬'으로 공세 카카오, 메신저 기반 AI 검색 선배



ChatGPT로 생성한 '국내 검색 시장 AI 경쟁' 관련 이미지.

네이버 중심의 국내 검색 시장에 인공지능(AI)기반의 검색기술 도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구글과 카카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검색 시장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을 보인다. 키워드 입력 기반에서 질문·대화형 검색으로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진다.

현재 시장 1위는 네이버다. 시장조사 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63.83%를 기록했다. 일부 기간에는 70%를 넘어서며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28.67%로 2위를 기록하며 격차를 좁히는 흐름이다.

업계는 최근 10년간 구글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

히 AI 검색 경쟁이 점유율 변화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AI를 전면 내세우며 검색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제미나이 인 크롬'은 기존 검색 결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웹페이지 요약과 정보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내에서 여러 탭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어 검색 과정 자체가 단축된

다. 제미니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변화는 검색을 '정보 탐색'에서 '정보 정리·실행' 단계로 확장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응해 네이버도 AI 기반 검색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AI 탭'을 통해 검색 질문을 이해하고 뉴스와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해 요약·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 질문을 통해 결과를 확장하

는 구조로, 이용자 맞춤형 검색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는 2분기 중 해당 기능을 정식 출시하고 AI 검색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도 메신저 기반 AI 검색으로 경쟁에 가세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작동하는 '카나나 검색'은 채팅 중 궁금한 내용을 별도 검색창 이동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입력한 옆 버튼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답변을 제공한다. 현재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AI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아카카오대표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겠다"고 밝히며 AI를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메신저 기반 서비스가 검색 이용 행태를 바꿀 가능성에 주목한다.

AI 검색 확산은 기존 수익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요약형 답변 중심 서

비스가 확대되면 클릭 기반 광고 모델과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검색 결과를 직접 정리해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페이지 이동이 줄어들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검색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데이터와 이용자 접점을 꼽는다.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결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브라우저, 메신저, 콘텐츠 플랫폼 등 이용자 접점이 다양한 기업일수록 AI 확산 속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다.

IT업계 관계자는 "검색은 더 이상 정보를 찾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AI를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행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3년이 국내 검색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생성형 AI 경쟁... 플랫폼 전쟁으로 확산

오픈AI, 사진 같은 고품질 이미지 생성 다국어 텍스트 렌더링 성능 개선 구글, 맥락 이해 '지능형 시스템' 진화 디자인 시안 제작 등 멀티모달 기능 강화

오픈AI와 구글의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이 이미지 생성과 웹 브라우저 생태계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AI가 베일에 싸여있던 고성능 이미지 생성 모델을 정식 공개한 데 이어 구글은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신 AI 기능을 전면 이식하며 맞붙을 났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은 단순한 모델 성능을 넘어 플랫폼과 사용자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성능 평가 플랫폼 'LM아레나'에서 코드명 '덕테이프(Duct Tape)'로 등장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던 모델의 정체는 오픈AI의 차세대 엔진 '챗GPT 이미지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AI는 지난 21일 이 모델을 정식 공개하며 이미지 생성 AI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챗GPT 이미지 2.0은 기존 모델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다국어 텍스트 렌더링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비영어권 문자를 이미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은 오픈AI 최초의 '이미지 사고(thinking)' 기반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명령어를 이미지로 치환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의도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웹 검색을 통한 정보 탐색과 결과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AI 생성물 특유의 위화감을 제



생성형 AI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6 포스터를 만들어줘'라는 동일한 명령어를 이용해 생성한 포스터. 오픈AI의 챗GPT(왼쪽), 구글의 나노바나나. /AI로 생성한 이미지

거하고 사진인지 AI 작업물인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구글은 이에 맞서 자사의 웹 브라우저 크롬에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1'을 통합한 '제미나이 인 크롬' 기능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브라우저 자체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사용자는 크롬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웹 서핑 중인 페이지의 내용을 즉시 요약하거나, 여러 쇼핑 탭에 띄워진 제품들의 가격과 사양을 표로 비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타임스탬프와 함께 요약해주고, 이미지 편집 모델인 '나노바나나 2'를 통해 브라우저 내에서 즉각적인 디자인 시안을 생성하는 등 멀티모달 성능이 극대화되었다.

구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개인화 지능(Personal Intelligence)'이다. 제미니는 이메일, 구글 포토, 검색 기록

등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별도의 상세한 설명 없이도 사용자의 취향에 딱 맞는 결과물을 내놓는다. "우리 가족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줘"라는 짧은 명령어으로도 구글 포토 속 가족 사진의 분위기와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하는 식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 아래 AI 생성물이 인간이 작업한 것과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러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이미지 2.0과 구글 나노바나나 2는 현재 디자인의 작업물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신진우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는 "기존 인간들이 해온 노동들이 AI로 대체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기술 전환이 이뤄질 때마다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 AI를 관리, 통제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LG CNS, '구글 올해의 한국 파트너' 선정

AI·클라우드 기술력 등 인정 받아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드 2026'에서 '올해의 파트너' 한국 부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고객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 성과를 낸 기업에 수여된다. LG CNS는 AI·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 고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한국 대표 파트너로 선정됐다.

LG CNS는 2023년 서비스·판매 부문, 2024년 서비스 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이어가며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성과를 이어왔다.

LG CNS는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 이'와 '버텍스 AI'를 활용해 제조, 금

융, 유통, 통신,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아시아·태평양과 미주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단백질 구조 예측 등을 활용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양사 협력은 2022년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AI 분야 협력과 글로벌 사업 확대 논의가 이어왔다. LG CNS는 구글 클라우드 최고 등급 파트너 자격도 유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삼성SDS,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맞손

AI·클라우드·보안 사업 강화

삼성SDS는 구글 클라우드와 'AI·클라우드·보안 분야'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현지 시간 2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6'에서 양사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금융 등 고보안·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구글 분산형 클라우드(GDC)를 활용해 고보안·규제 시장을 확대한다. GDC는 데이터센터와 에지 환경을 위한 완전 관리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이다. 규제 준수·데



(왼쪽부터)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 사업부장, 루스 선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이 23일(현지시간 2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파트너십 현장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SDS

이터 현지 처리·시스템 생존성·초저지연 등의 요건을 갖췄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과 삼성SDS의 클라우드의 기술 역량과 업종 전문성을 결합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사업도 강화한다. /조민선 기자 msjo@